DBpia

정당 선호의 감정적 기반: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박 원 호 서울대학교 · 신 화 용 서울대학교

논 / 문 / 요 / 약

본 논문은 세월호 사건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맥락에서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밝히려는 시도이며, 특히 세월호 사건이 야기한 분노나 좌절 등의 감정이 시민들의 정당 선호에 미친 영향을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의 대비를 통해 살피고 이것이 투표선택에 어떤 효과를 낳았는지 검토한다. 2012년 대통령선거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패널 설문조사와 기억상기 실험설문을 이용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세월호 국면을 통과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매우 안정된 정당일체감을 여전히 유지했던 반면, 정당에 대한 단기적인 호감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상당히 저하되었음을 보여준다.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정부·여당에 대한 처벌보다는 정치 전반에 대한 실망이 양당 모두에 대한 호감도 하락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한편 투표선택 분석결과에서는 유권자들이 정치적 태도의 장기적이고 견고한 바탕인 정당일체감을 안정적으로 지니면서도, 동시에 정당에 대한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단기적인 평가를 끊임없이 수행하고 이를 투표선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과 내용에 대한 평가가 아니더라도, 감정과 직관을 이용한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태도의 신속한 업데이트는 책임정치의 가능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주제어〉 정당일체감, 정당호감도, 유권자 감정, 국가재난, 세월호 사건, 한국 선거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2S1A5A2A03034703).

원고접수일 : 2014년 10월 10일, **심사일** : 2014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 2014년 11월 27일

www.dbpia.co.kr

I. 들어가며

윗세대로부터 물려받고 아랫세대로 상속되는 한 공동체의 집합적 기억(collective memory)이라는 것이 있다면, 세월호 침몰 사건이 우리의 집합적 기억에 남긴 상흔의 깊이는 비할 바 없이 심원한 것이었다. 대재앙을 비교하는 우를 잠시 범한다면, 미국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동일한 세상을 살지 않는 것"으로 느끼게끔 한 9.11 테러사건이나 일본인들이 겪은 2011년의 대쓰나미를 상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좀 더 정치적으로 적실한 측면에 주목한다면, 세월호의 집합적 경험이 우리의 공적 여론(public opinion)에 미친 영향이란 것은 외부로부터의 테러공격이었던 9.11이나 천재지변으로 시작된 일본의 핵 누출보다 더 강력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사건의 발단, 전개와 수습의 전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이끄는 정부의 무기력함이 이토록 극명하게, 서서히 침몰하는 배와 함께, 슬로우 모션으로 시민들의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유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적실한 측면에 주목한다는 의미는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권과 책임을 위임받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정치적 반응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치학 문헌은 이러한 정부에 대한 성과평가(performance evaluation) 과정을 매우 합리주의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상황이나 전망이 여당의 유불리를 좌우한다는 경제투표모형(Lewis-Beck 1990)이나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현지도자의 국정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애국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Baum 2002) 등의 논의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민상(像)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이 우리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았고 또 그렇지 않을 것임은 비교적 자명하다. 오히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 좌절 등의 형태로 생성되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집합적인 감정으로 구성되어 공적 여론의 중요한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적 여론의 흐름은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에너지로 승화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무화되고 모두가 정치적 일상성으로 회귀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세월호 사건 자체에 대한 규범적인 분석이나 비평, 그리고 실천적 지침들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오히려, 본 논문은 세월호 사건에 투영된 한국 시민들의 집합적 인식론에 대한 탐구이며, 세월호 사건이라는 외재적 충격을 통해 우리의 공적 여론과 투표행태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만약 한국의 공적 여론과 투표선택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상수항들이 존재한다면, 세월호 사건은 이러한 정태적인 시스템에 불어 닥친 돌발적이고 외재적인 충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외재적 충격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동태적인 반응을 통해 상수는 무엇이고 변수는 무엇인지를 살피려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유권자들과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에 대해 재음미하려고 한다.

정치적 삶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본 연구의 중핵을 이룬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감이었건 정부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었건, 세월호 사건이 한국인들의 정서적 심연을 그 근저에서부터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명확하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띠는지, 특히 선거에서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늠은 어렵다. 정치현상 속에서 감정의 역할 또는 작동기제에 대한 고민과 이해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채 우리는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 좀 더

www.dbpia.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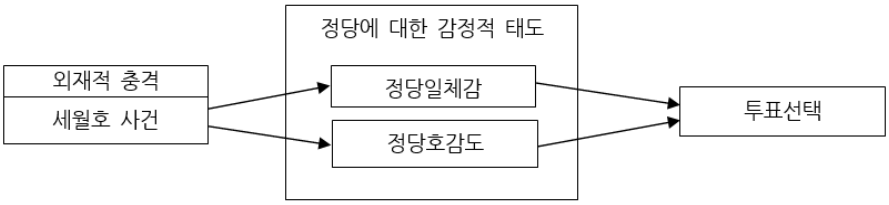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이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와 관련하여 한국 정치학이 감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을 희망한다.

정치학 문헌이 감정보다는 이성 혹은 합리성에 천착했던 이유는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는 시민'이 '감정에 좌우되는 시민'보다 근대적 민주주의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왔기 때문이다. 또한, 손에 잡히지 않고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라는 요소가 경험적 연구에 상당한 난점을 준다는 사실도 분명하다. 그러나 '공감하는 시민' 또한 민주주의적 과정에 그만큼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선거를 포함한 정치과정에 감정의 역할은 늘 임박성(immediacy)을 지녔다는 것을 이곳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이 대답하려고 하는 질문들은 다음의 두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세월호 사건이 대중 사이에 불러온 감정은 그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정치적 선호의 구조에 어떤 파형을 일으켰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정당을 내면화하는 방식으로 알려진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에 세월호 사건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정당에 대한 공적 여론의 특징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렇게 변화된 공적 여론이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사람들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인식과 감정, 그리고 정당에 대한 내면화가 이들의 선거에서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앞의 질문이 유권자들의 내면적 태도에 관한 질문이라면, 이 질문은 유권자들의 행위와 관련된 질문이며, 민주주의적 책임정치와 직결된 질문이기도 하다.

〈그림 1〉 연구 질문의 도식화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기존 문헌이 이해하는 일반대중이 정당에 대해 갖는 감정적 태도들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가 중장기적으로—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에 이르는 1년 반 여의 기간 동안—얼마나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패널 자료를 통해서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 전후로 실시된 두 차례의 조사에 포함된 실험문항을 분석하여 〈그림 1〉의 왼쪽 화살표들의 작동기제, 즉 외적 충격인 세월호 사건이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다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단기적 충격에 대한 두 가지 태도의 속성을 밝힌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정당에 대한 두 가지 감정적 태도에 기반한 공적 여론이 2012년 대통령선거 및 2014년 동시지방선거의 투표선택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즉 〈그림 1〉에서 오른쪽 화살표들의 작동기제를 밝힐 것이다.

www.dbpia.co.kr

Ⅱ. 이론적 자원: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

정당은 시민들이 정치현상을 바라보고 정치적 태도를 형성할 때 가장 주목하게 되는 대상 중 하나이다. 수많은 행위자가 상호작용하며 여러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잡한 정치현상 속에서 정당에 대한 태도는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정치적 태도 형성의 기준 또는 관점(perceptual screen)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복잡한 정치세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단순화시켜주는 정보 습득의 지름길(information short-cut)을 제공하기도 한다. 즉 정당에 대한 태도는 한 사람의 정치적 정향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며 개별 유권자의 거의 모든 정치적 판단과 행동에 정당에 대한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이 정당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매우 길고 풍부한 논쟁을 거쳐 왔는데, 이곳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과 정당호감도(feeling thermometer)의 대조이며, 양자를 유권자의 감정적 태도 차원에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특히 정당일체감에 대한 논쟁의 지반에서 본 논문이 차지하는 위치를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당일체감은 캠벨 등(Campbell *et al.* 1960)을 중심으로 한 미시간 학파가 투표선택 등 정치적 행태의 강력한 결정요인으로 지목하면서 정치학 연구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어린 시절 부모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심리적인 애착심(psychological attachment)으로, 한번 형성되고 나면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 여타 정치적 시각과 행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움직이지 않는 동인(unmoved mover)'이다. 즉 정당일체감은 각종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투표선택을 비롯한 각종 정치적 행태 및 태도를 형성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것이다(Bartels 2002; Gerber *et al.* 2010).

이러한 전통주의적 입장에 의하면 정당일체감은 매우 안정적이며 장기적인 지속성을 지닌다. 정당일체감은 일생에 걸쳐 유지되면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구성하며(Campbell *et al.* 1960; Converse 1964; Sears and Funk 1999), 개인 수준에서 뿐 아니라, 사회 전체 수준에서도 정당일체감의 분포는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된다(Jennings and Niemi 1975; Converse and Markus 1979; Green *et al.* 2004).

정당일체감의 안정성을 강조하되 '감정적 애착'에 보다 주목한 연구의 갈래로는 상징정치(symbolic politics) 논의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정치적 상징들에 대하여 비용 또는 혜택에 대한 계산 없이 안정적인 감정적 선호인 상징적 태도를 갖게 되고, 이는 이후의 각종 정치적 태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Sears et al. 1979; Lau and Heldman 2009). 이 때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상징이자 태도 대상(attitude object)이 바로 정당이며, 그에 대해 형성된 감정적 태도가 정당일체감이다.

반면 수정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반응하는 가변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회고적 평가 또는 전망적 이익에 대한 예측과 같은 인지적인 평가에 기반하여 새롭게 수정(update)되는 유동적인 정치적 태도이다(Fiorina 1981; Achen 1992; Franklin and Jackson 1983; Erikson *et al.* 2002). 정당일체감의 인지적 · 평가적(cognitive · evaluative) 측면을 강조한 수정주의 입장에서 정당일

www.dbpia.co.kr

체감은 정치현상 속에서 '수시로 업데이트 되는 선호의 총합(readily updated sum of preferences)' (Johnston 2006, 329)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정당일체감의 속성에 관한 논쟁이 한국적 맥락에서는 그 논의가 한층 더 복잡해진다. 미국을 배경으로 탄생한 정당일체감의 안정성 여부뿐만 아니라, 여전히 정당체계가 불안정하여 이합집산을 거듭하면서 유권자와의 연계 등 사회 내에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운 한국의 정당들(강원택 2007; 곽진영 2009; 윤종빈 외 2014)에 대하여, 과연 한국 유권자들이 정당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당일체감을 종속변수로 두고 그 형성배경을 밝히려는 연구들도 제시되었으나(한정훈 2012; 허석재 2014),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경험적으로 한국에 정당일체감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밝히고, 그 존재여부에 대한 개념적 논쟁에서 벗어나 다음 차원의 생산적인 논의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문제의식이다.

세월호 사건이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에 미친 영향은 인지와 감정의 어느 한 측면만을 포괄할 것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만약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수정주의적 모델과 가까워서 단기적 평가에 좌우된다면, 정부 · 여당에 대한 처벌기제를 통해 정당일체감이 체계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세월호 사건 같은 외재적 충격에 매우 직접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반면, 만약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이 전통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을 거쳐 구성되고 단련된 심리적 애착심이라면 우리는 세월호 사건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안정된 정당일체감의 패턴을 보게 될 것이다.

정당일체감과 대별되는, 특히 단기적인 감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흥미로운 또 다른 척도는 정당호감도이다. 이는 정당을 포함하여 정치인이나 정부기관과 같은 정치적 대상을 시민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는 좋아하는지의 정도를 0℃에서 100℃까지 스스로 고르게 하는 척도로서 감정온도계(feeling thermometer)로 직역[1]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CPS(Center for Political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의 선거연구에서 1968년부터 사용되었고, ANES(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에서는 1979년 파일럿 연구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측정방식의 정밀화가 시도되었다(Weisberg and Miller 1979). 방법론적으로 연속변수라는 장점이 있으면서도 극단적인 값들(0℃ 또는 100℃)과 중심값(50℃)으로 응답자들이 쏠리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으나(Alwin 1997; Pasek and Krosnick 2010), 정당호감도는 특히 투표선택에 관한 기존문헌에서 강력한 투표결정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으며, 이념성향이나 후보자 지지와도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Miller *et al.* 1991; Wilcox *et al.* 1989).

투표선택에 대한 예측력은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 모두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적 맥락에서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예측력을 보인다(박원호 2013). 연구자에 따라서는 정당호감도를 정당일체감의 개념과 혼용하거나, 일체감도 호감과 반감으로 구성되므로 결국에는 호감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면서, 개념적 명확성이나 척도의 용이성 등의 이유로 호감도를 선호하여 사용하기도 한다(장승진 2012). 본 연구는 두 개념을 혼용하거나 호감도만을 선호하는 입장과 대척점에 서 있으며, 정당일체감이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내면화되고 구조화된 애착심이라면, 정당호감도는 단기적인 이슈나 정세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라는 가설에 기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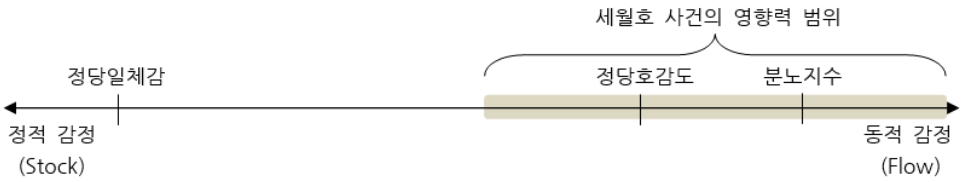
---

1) 한국 문헌에서 호오도(好惡度)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특정 정당의 대한 호감 뿐아니라 비호감도 해당 측정치에 포함된다는 의미에서 호오도가 더 정확한 개념적 번역이다.

www.dbpia.co.kr

주요한 고려사항은 앞서 논의된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가 한국적 맥락에서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는 질문이다. 본 논문은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다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첫째, 정당일체감, 둘째, 정당호감도, 더불어 셋째, 세월호 사건 분노지수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정당일체감은 장기적인 정치적 상징인 정당에 대한 안정적인 정향으로, 정당에 대한 감정 중 가장 정적(stock)인 속성을 지닌다. 반면 정당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를 반영하는 호감도는 보다 동적(flow)인 특성을 지니며, 특정 정치적 국면, 이를테면 세월호 사건과 관련되어서 표출되는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포착한 분노지수는 세 가지 감정적 구성물 중 가장 유동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외생적 사건에 반응하며 구성되는 과정 및 질적 속성, 그로부터 투표선택이라는 정치적 판단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관계를 관찰한다.

〈그림 2〉 속성에 따른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



이처럼 공적 여론을 구성하는 감정의 정치적 · 사회적 의미에 대하여 기존 정치학 문헌은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우선, 일군의 학자들은 감정보다는 이성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수치화 된 계산이나 이성적 사고에 기반하여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 정치적 관여 방식에 초점을 두어 정치현상을 이해한다(Downs 1957; Riker and Ordeshook 1968; Shapiro and Page 1988). 더 나아가, 감정이 사회분열을 초래하거나 신중한 정치적 판단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공적 여론에서 감정의 역할을 억제해야 한다 보았던 견해도 있으며(Madison 1787; Almond 1950), 정치현상에 대해 감정적 반응은 보이나—예컨대 정당일체감은 보유하지만—인지적 세련도가 낮은 경우 비일관적이거나 의견이 없는 대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Converse 1964).

반면 정치적 삶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의 근원적인 동인이 되는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 또한 짧지 않은 전통을 가진다(Hobbes 1651; Hume 1738). 더 나아가 '감정적인 시민'이 감정적 반응을 통해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 바람직한 시민상에 가까울 수 있다는 논의도 제시된다. 예컨대 공감 또는 연민의 감정이 개인들을 사회와 연결시켜주고 공동체 지향적인 관념 확산의 동인이 된다거나(Nussbaum 1996; Hunt 2008), 사회에 대한 불안감 또는 열정과 같은 감정이 사회현상에 대한 관심, 정보 습득, 나아가 정치참여를 촉진한다는(Brader 2005; Valentino *et al.* 2008) 연구들도 존재한다. 나아가, 앞서 보았던 상징정치 논의(Sears *et al.* 1979)는 정당일체감과 같은 장기적 감정적 태도가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정치적 태도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 역시 시사한다.

후자의 전통과 연관된 맥락에서, 이 논문은 장기적인 정치적 대상에 대한 정적인 감정태도(정당일체감)가 매우 일관적이고 안정적일 수 있음을 보이고, 그에 대비되어 동적 감정태도(정당호감도 및 분노지수)에 반영된 단기적 사건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통해 시민들이 정치사회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www.dbpia.co.kr

Ⅲ.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의 중장기적 안정성 여부: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선거까지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당일체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과연 유권자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감정적 애착심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되는지, 즉 이것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정당일체감과 관련된 논의는 서구, 특히 미국적인 맥락에서 정의되고 연구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문은 적어도 수십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외국의 정당들과는 달리 명멸하는 한국 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지속적인 애착심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 역시 가능하다. 정당의 이름이 변화하거나 정치인들이 이합집산 한다고 해서 한국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당'을 찾는데 실패한 적이 과히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비교적 일관된 선호가 존속하기 때문에—그것이 지역주의에 기반한 것이든 계층에 기반한 것이든—정치엘리트들의 잦은 정당명 변경이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정당일체감의 안정성 여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니다. 우선 첫 번째로 측정(measurement)의 문제가 존재한다. 어떤 문항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애착심을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당파심 응답에 많게는 20%~30%의 차이[2)]가 나는 것이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박원호 · 송정민 2012). 따라서 상이한 설문문항에 기반한 정당일체감을 서로 비교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하게는 둘째, 상이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통시적 비교가 집합수준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개인수준에서의 변동을 놓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수의 유권자들이 양당에서 이탈하여 반대당으로 이동하는 경우, 집합수준에서는 완벽하게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일체감의 상당한 변동이 개인수준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서울대학교 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 2012년 대통령선거와 2014년 동시지방선거에 걸쳐 실시한 온라인패널 설문조사 자료로, 개인 수준의 정당일체감의 변동과 안정성을 장기간에 걸쳐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 조사에 참여한 동일한 응답자들의 상당수를 최근의 지방선거 국면에서 다시 조사한 '긴 패널'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과연 지난 1년 반 여의 기간 동안 정당일체감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개인수준에서 나타났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 기간은 세월호 사건을 포함한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의 정치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주목할 만하다.

〈표 1〉에 따르면 개인수준에서 정당일체감 변화의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당일체감의 7점 척도 스케일에서, 2012년 대통령선거 시기의 응답과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응답 간의 '거리'를 이탈의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83%의 응답자들이 1점 이내에서만 움직였으며, 96%의 응답자들이 2점 이내에서만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이동거리의 평균은 약 0.77 정도였다. 표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2012년 대통령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에 대해 가깝다고 느꼈던

2) 가장 간단하게는 "다음 중 가깝게 느끼는 정당을 고르라"는 단문형 문항과 "가깝게 느끼는 정당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정당이 어느 정당이며 지지하는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묻는 표준적 NES 타입의 문항이 있는데, 후자가 전자에 비해 무당파층을 더 과대추정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전자의 경우에 "지지하는 정당 없음"을 보기로 주는지 여부도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가깝게 느끼는 정당"으로 묻는지, "지지하는 정당"으로 묻는지에 따라서도 그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ww.dbpia.co.kr

응답자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시점에 와서 반대편 정당에 대해 가깝다고 응답한 비율은 1.9%에 불과했으며, 이 범위를 넓혀 특정 정당에 대한 '편향적(leaning)' 무당파가 다른 정당에 대한 편향적 무당파로 변화한 것까지 포함시킨다고 해도 그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2%에 불과했다. 지난 대통령선거 이후 1년 반의 기간 동안 각종 정치적 사건들이 발생했고 다양한 변화를 경험했지만,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내면화는 여전히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표 1〉 정당일체감의 '이탈거리':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선거까지

이탈거리	-6	-5	-4	-3	-2	-1	0	1	2	3	4	5	6	합계
응답자 수	2	0	8	4	38	134	393	169	70	11	2	4	1	836
비율(%)	0.2	0.0	1.0	0.5	4.6	16.0	47.0	20.2	8.4	1.3	0.2	0.5	0.1	100

한편, 본 논문에서 상이한 개념적 구성체로 상정하는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의 분포 변화의 양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상이한지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앞서 살핀 정당일체감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 새누리당에 대한 호감도가 호감(51점 이상)에서 비호감(49점 미만)으로 혹은 그 반대로 변화한 응답자들의 비율은 13.8%였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러한 변화 비율이 무려 20.3%에 육박하였다. 이러한 정당호감도의 평균 이동거리는 새누리당에 대하여 13.5,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에 대하여 14.7이었다. 정당일체감에 비해 정당호감도에서 이탈의 비율 및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모습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 대해 공히 발견된다.

〈표 2〉 정당호감도의 변화: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선거까지

		지방선거			
		비호감	중립	호감	합계
대통령선거	비호감	47.97	4.31	6.58	58.85
	중립	4.90	2.63	2.27	9.81
	호감	7.18	2.39	21.77	31.34
	합계	60.05	9.33	30.62	100
새누리당 호감도					

		지방선거			
		비호감	중립	호감	합계
대통령선거	비호감	40.31	4.55	7.18	52.03
	중립	3.95	3.59	2.03	9.57
	호감	13.16	4.90	20.33	38.40
	합계	57.42	13.04	29.55	100
민주당/새정치연합 호감도					

* 비호감(49이하); 중립(50); 호감(51이상). 응답자 수=836.

상이한 척도과 상이한 개수의 문항으로 측정된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물론 많은 난점이 있다. 보다 넓은 범위인 0에서 100까지의 연속 스케일에서 측정된 호감도는, 서너 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7점 척도로 구성된 정당일체감에 비해 그 변화의 폭이 일반적으로 더 넓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립'인 50점이나 '매우 싫음'인 0점을 습관적으로 택하는 응답자들이 확연히 많은 호감도의 측정상 특징을 고려하면 변화의 진폭이 오히려 더 작을 것이라는 예측 역시 근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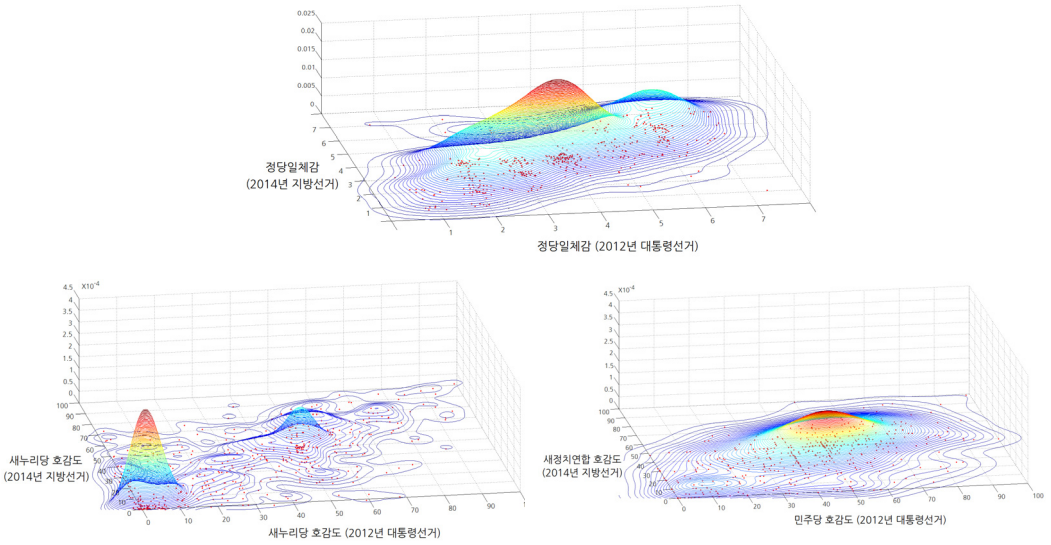
www.dbpia.co.kr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전략을 통한 접근에 기반하여 양자의 안정성 여부를 검토한다. 하나는 비모수적인 커널 분포 추정(kernel density estimation)을 통해 그 관계의 강도를 거칠게나마 질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절에서 시도하는 것처럼 본격적인 실험설문을 이용하여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의 안정성을 비교하는 전략이다.

우선 첫 번째 전략인 커널 분포 추정에 따라 구현된 〈그림 3〉에 제시된 세 개의 그래프를 볼 때, 공히 x-축은 첫 번째 시점인 대통령선거 조사에서의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를 지칭하며, y-축은 두 번째 시점인 지방선거 조사에서 측정된 해당 변수들을 지칭한다. 그 위로 보이는 체적은 커널 분포 함수를 추정한 것인데, 이를테면 높은 봉우리는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 있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위쪽의 정당일체감 그래프에 주목하면, 양대 선거에서 동일한 응답을 했음을 의미하는 45도 선위쪽으로 능선이 형성되어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정당호감도의 경우에는 대통령선거 당시 호감도와 지방선거 시기의 호감도 사이의 상관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 호감도의 경우—온라인 패널의 속성상 그러한 특징이 더 강조된 면이 있지만—상당한 수의 응답자들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두 시기 모두 새누리당에 대해 최저점인 0점을 부여하였고, 이것은 하단부 좌측 그림에서 원점 위로 형성된 높은 봉우리로 드러난다. 매우 많은 응답자들이 50점이라는 중립[3]을 선택한 것도 매우 전형적인데, 이러한 0점과 50점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특별히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이라 부를만한 호감도의 구조가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야당(민주당/새정치연합)의 경우에는 새누리당과는 달리 매우 싫어하는 감정(0점)을 가졌던 사람이 그리 많지 않지만, 동시에 호감도의 시점간 불안정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의 변동: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3) 50점의 의미는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의미 외에도, '잘 모름'의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정치적 무관심이나 응답 회피 등을 모두 합의할 수 있다.

www.dbpia.co.kr

이와 같이 2012년 대통령선거 시기에서부터 2014년 지방선거 직후까지 약 1년 반 이상의 기간 사이에 발생한 유권자들의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았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그에 뒤따른 정치 일정에서 지지율의 하락, 그리고 세월호 사건으로 대표되는 격랑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 한국 유권자들이 보여준 변화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으로부터의 '이탈'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며, 이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새정치연합으로부터의 이탈로도 나타났으며, 특히 야당이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러한 이탈은 정당일체감보다는 정당호감도라는 보다 단기적으로 유동적인 감정적 태도의 층위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정당호감도의 하락은 세월호 사건이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던 가설과 부합한다. 이하에서는 보다 미시적이고 엄밀한 실험설문을 통하여 세월호 사건이 어떤 경로를 따라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에 영향을 미쳤고 각각의 안정성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본다.

Ⅳ.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의 단기적 안정성 여부: 세월호 사건의 환기

1. 세월호 사건 실험설문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억의 환기가 정당에 대한 태도에 미친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설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2014년 지방선거 이전과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응답자를 대상으로, 우선 지방선거 이전에 실시된 1차 조사에서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를 측정하였다. 지방선거 종료 이후의 2차 조사에서는 응답자 표본을 무작위로 절반으로 나누어, 절반의 응답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극 없이 1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를 측정했다. 반면 나머지 절반에게는 먼저 세월호 사건을 상기시키는 일련의 실험문항에 응답하도록 한 뒤, 뒤따르는 후속문항에서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 응답을 하도록 했다.

〈표 3〉 실험설문 설계

	1차 조사(지방선거 전)	2차 조사(지방선거 후)	
실험집단 (N=1,331)	정당일체감 측정 정당호감도 측정	세월호 사건 상기 (책임과실, 부정적 감정)	정당일체감 측정 정당호감도 측정
통제집단 (N=1,336)		없음	

2차 조사에서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 사건에 연루된 여러 정치적 주체들의 책임 및 과실의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4] 둘째,

www.dbpia.co.kr

정치적 주체들 각각에 대해 느꼈던 분노, 좌절감, 실망감, 불안감 등 부정적 감정의 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다.[5] 이러한 설문방식은 응답자가 단순히 세월호 사건을 피상적으로 떠올리고 지나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된 행위자들(대통령,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지방정부, 해운업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그들 각각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더 나아가 관련 주체들에 대한 자신의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도록 유도하는 과정 속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억이 응답자들의 머릿속에서 보다 또렷하게 떠오르도록 만드는 것을 의도했다.

이하에서는 2차 조사에서 세월호 실험문항을 제공받은 실험집단과 제공받지 않은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세월호 기억 상기 여부에 따라 집단 간에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또한 외적 충격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나타내는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의 질적 특성의 차이, 그리고 세월호 사건이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태도에 현실적으로 어떤 타격을 입혔는지를 알아본다. 더불어, 수많은 변수들이 상호작용하여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사회과학 연구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를 통해 관심있는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실험연구의 가치와 가능성도 타진해보고자 한다.

2. 정당일체감의 견고성과 정당호감도의 유동성

이 곳에서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외생적 충격이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에 주목하여 분석을 진행하며, 특히 두 유형의 감정적 태도가 세월호 기억에 의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주목한다. 또한, 지지 정당에 따라 유권자 특성이 상이하므로, 새누리당 지지층, 새정치연합 지지층, 무당파층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세월호 사건에 대한 태도와 반응을 비교할 것이다.

첫 번째로 단일 시점을 기준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정당일체감 및 정당호감도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2차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정당일체감과 양대 정당에 대한 호감도 평균값을 보여준다. 2012년 대통령선거시기와 2014년 지방선거 시기 사이의 기간 동안 정당일체감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정당호감도의 변동성은 높았다는 앞 절의 장기적 추세에 관한 발견과 일관되게, 단기적 자극에 대해서도 역시 정당일체감이 정당호감도에 비해 더 높은 안정성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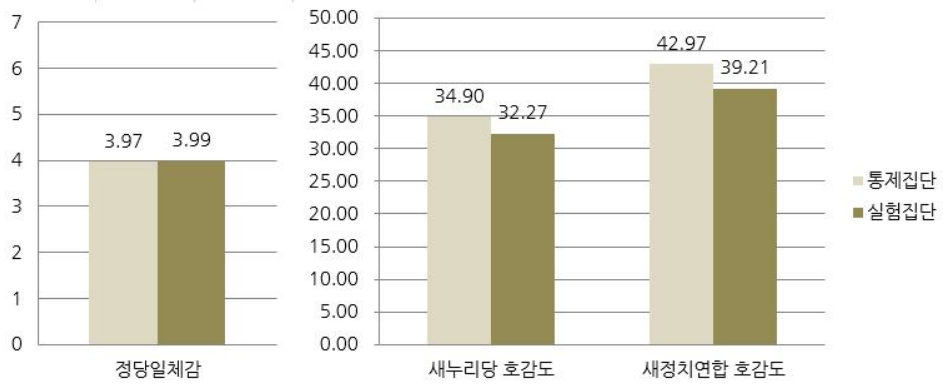
---

4) "세월호 사건의 발생 및 미흡한 대응과정에서 다음에 제시된 각 주체들의 책임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한 귀하의 판단을 표시해주세요." (매우 낮음(0)~보통(5)~매우 높음(10))

5) "세월호 사건 이후 각 주체들에 대해 느꼈던 분노, 좌절감, 실망감, 불안감 등의 강도를 표시해주세요." (전혀 느끼지 않았다(0)~매우 강하게 느꼈다(10))

www.dbpia.co.kr

〈그림 4〉 세월호 실험자극 여부에 따른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6)]



* 정당일체감: 1=강한 새정치연합, 2=약한 새정치연합, 3=새정치연합 편향, 4=무당파, 5=새누리당 편향, 6=약한 새누리당, 7=강한 새누리당

** 정당호감도: 0=매우 부정적~50=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도 않음~100=매우 긍정적

세월호 사건을 상기했던 실험집단의 정당일체감 평균은 3.97이었고,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받지 않았던 통제집단의 정당일체감 평균은 3.99였으며, 이들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7)] 즉 정당일체감은 세월호 사건 상기라는 단기적 영향에 대해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었던 것이다. 반면, 정당호감도는 세월호 사건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의 새누리당 호감도 평균이 2.81만큼 낮았고, 새정치연합 호감도 평균은 3.61만큼 낮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로부터 안정적인 구조로서의 정당일체감이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정당호감도와는 별개로 존재하며, 외생적 사건에 의해 쉽게 요동치는 것은 정당일체감이 아닌 정당호감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지방선거 전후에 실시된 두 시기 사이의 집단별 정당일체감 및 정당호감도의 변동 검토를 위해 시기 간 평균값 변화 추이를 〈그림 5〉와 같이 구성하였다. 추세선이 점선인 경우 두 시기 사이에 평균값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을 의미하고, 실선인 경우 두 시기 사이에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화

6) 실험설문 제공여부에 따른 각 측정치 평균 및 격차의 통계적 유의미도는 다음과 같으며, 정당일체감 응답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무당파 외의 기타정당을 선택한 응답자(265명)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통제집단	실험집단	격차	T-test유의도
정당일체감	3.97	3.99	0.02	0.68
새누리당 호감도	37.20	34.39	-2.81	0.00
새정치연합 호감도	43.15	39.54	-3.61	0.00
응답자 수	1,366	1,331		

7) 두 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으므로 정당일체감이 외적충격에 대해 더 견고하다는 본 논문의 주장에 대하여, 정당일체감 척도의 특성상 양방향으로의 수치가 서로를 상쇄하여 집단간 평균이 비슷할 수 있다는(예컨대 실험집단은 세월호 자극으로 인해 응답자들이 무당파 쪽으로 몰리고, 통제집단은 강한 일체감 쪽인 양 극단에 몰려있는 경우에도, 집단간 평균값은 결국 비슷하므로 평균값만으로 정당일체감이 세월호 자극에 대해 더 견고하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래의 표에 나타나듯,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은 모든 수준의 정당일체감에 대해 응답비율이 비슷했다. 이는 실험집단에서 세월호 자극에 의해 정당일체감이 요동치지 않았으며, 결국 정당일체감에는 세월호 자극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음을 다시금 확인해준다.

	강한 새정치연합	약한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편향	무당파	새누리당 편향	약한 새누리당	강한 새누리당	응답자 수
통제집단	3.59	12.45	16.69	40.19	9.66	12.74	4.69	1,366(100%)
실험집단	2.78	11.42	17.36	42.07	9.62	12.25	4.51	1,331(100%)

www.dbpia.co.kr

했음을 의미한다. 이하의 발견에 따르면, 세월호 사건 상기 자극 여부에 따라 변동 양상은 집단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가 질적으로 상이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된다.

첫째, 정당일체감은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서 거의 동일한 양상의 변화를 보였다. 통제집단의 경우 선거 전후 시기 사이에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파층에서는 정당일체감의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만 새정치연합 방향으로 정당일체감의 강화가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실험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월호 기억을 상기시켰을 때에도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파층의 정당일체감 평균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고, 새정치연합 지지층의 정당일체감 강화 추세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즉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는 자극에도 불구하고 정당일체감은 방향성이나 강도 측면에서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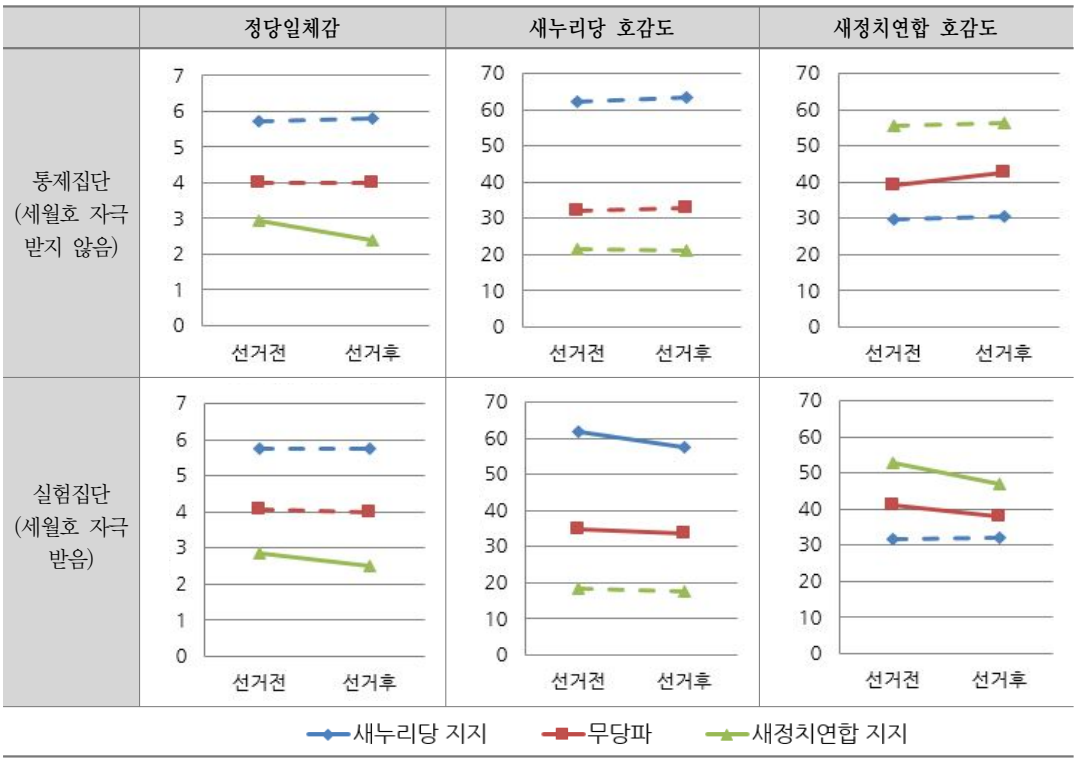
둘째, 정당일체감과 달리 새누리당 호감도는 세월호 사건 자극에 유동적으로 반응했다. 세월호 사건 상기 자극이 없었을 때 모든 집단에서 새누리당 호감도가 선거 이전과 이후 사이에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세월호 자극을 받은 경우 새누리당 지지층과 무당파층의 새누리당 호감도가 유의미하게 하락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났다.

셋째, 새정치연합 호감도 역시 세월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단서로 인해 가변적으로 변동했다. 세월호 자극이 없었던 경우 지지정당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새정치연합 호감도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무당파층 사이에서만 호감도가 상승했던 것과 달리, 세월호 자극이 주어지자 무당파층과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호감도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하락했다.

정당호감도 변동에서 한 가지 주지할만한 사항은 지지 정당이 있는 경우 상대편 정당에 대한 호감도는 세월호 자극에 의한 특별한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월호 사건을 상기시킨 실험집단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의 새정치연합 호감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새정치연합 지지층의 새누리당 호감도 역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세월호 사건에 대한 상기는 오히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강력하게 악화시켰다. 즉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억의 상기는 애초부터 별다른 기대가 없었던 상대 정당보다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기대감을 가라앉게 만들었던 것이다.

www.dbpia.co.kr

〈그림 5〉 정당일체감 및 정당호감도 변동[8)]



* 점선은 두 시기 사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 실선은 두 시기 사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함.

Ⅴ. 공적 여론의 구성과 투표선택

1. 분노 대상으로서의 정당

이번 절에서는 실험설문의 세팅에서 벗어나, 현실에서 세월호 사건이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라는 두 가지 감정적 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보다 확장된 논의를 이어간다.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대중 사이에서 세월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주체들에 대한 분노와 원망, 실망감이 표출되었다. 서서히 가라앉는 세월호 만큼이나 사람들이 느꼈던 좌절감은 걷잡을 수 없이 바닥을 치고 있었고, 질타의 대상에는 대통령 뿐 아니라 양대 정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사건 자극에 대하여 정당일체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정당호감도가 정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요동쳤던 이유, 더 나아가 집권당 뿐 아니라 야당에 대해서도 감정적 악화가 두드러졌던 원인을 실험설문에 사용되었던 문항에 대한 응답의 분석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8) 정당일체감 문항 응답시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무당파 외의 기타 정당을 선택한 응답자(265명)는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www.dbpia.co.kr

〈표 4〉는 실험 자극으로 제공되었던 “세월호 사건 이후 각 주체들에 대해 느꼈던 분노, 좌절감, 실망감, 불안감 등의 강도를 표시해주세요.”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보여준다. 이 값들을 우리는 세월호 사건 관련 주체들에 대한 ‘분노지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며[9],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가장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감정적 반응으로 볼 수 있다.

〈표 4〉 대상별 분노지수 평균

	대통령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지방정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운업계
새누리 지지	4.47	5.34	6.31	7.00	7.89	8.27	8.80
무당파	7.09	7.26	7.02	7.34	8.20	8.30	8.58
새정치연합 지지	8.62	8.63	7.35	7.70	8.93	9.13	9.02
전체 평균	7.07	7.35	7.01	7.35	8.41	8.58	8.80

우선 전체 응답자의 분노지수 평균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분노를 표출한 대상은 안전행정부(전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해운업계였다. 반면 흥미롭게도 대통령,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지방정부에 대한 분노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낮았다. 비록 사회 전반에서 대통령과 여당, 야당의 무능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지만, 대중의 사고 속에서 상대적으로 사건과 보다 밀접한 연관관계에 놓인 대상은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운업계였던 것이다.

세월호 사건 관련 주체들에 대한 분노지수를 지지 정당에 따른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점들이 발견된다. 우선,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분노를 표출한 집단은 새정치연합 지지층이었다. 이들은 세월호와 가까운 관련을 맺고 있는 안전행정부, 해양경찰청, 해운업계에 대해서 다른 집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분노지수를 나타내었고, 대통령, 새누리당, 지방정부 뿐 아니라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인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분노를 표출하였다. 이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대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분노지수를 보인 것과는 대비되는 것으로, 세월호 사건에 의한 감정적 타격은 비단 여당과 현정부 뿐 아니라 야당에게도 비교적 컸으며, 여타 집단보다도 야당을 지지하는 새정치연합 지지층 사이에서 그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더불어, 정당에 대한 분노지수와 대통령에 대한 분노지수를 비교하면 유권자들의 지방선거 투표선택에 대한 함의도 도출된다. 이는 다음 절의 투표선택 논의와도 밀접한데, 새누리당 지지층과 새정치연합 지지층 간의 분노지수 격차가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3.29, 새정치연합에 대해서는 1.04였던 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4.1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즉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에 따른 감정적 타격의 차이가 정당보다는 대통령에 대해 더 뚜렷하게 존재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절에서 투표선택과

9) 유권자가 세월호 사건을 맞닥뜨리면서 느끼는 감정은 분명히 매우 복합적이었기 때문에 분노, 좌절감, 실망감, 불안감과 같은 다양한 감정 상태를 실험문항에서 언급하였다. 구체적인 개별 감정상태가 상이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도 ‘분노지수’라고 포괄하여 명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신경과학(Neuroscience) 분야에서 뇌의 구조상 감정이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두 차원으로 촉발된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Davidson 1988), 감정이 크게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두 차원으로 구성되며 분노, 좌절감, 실망감, 불안감은 부정적 감정차원에 함께 속하는 감정 유형(Watson *et al.* 1988; Marcus 1988)이라는 것이 요인분석 등의 통계적 검증을 통해 심리학 및 정치학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세월호 사건에 대해 느낀 부정적 감정들을 포괄하여 ‘분노지수’라고 명명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

www.dbpia.co.kr

세월호 사건을 연결짓는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일반 대중의 기억에 강렬한 감정적 타격을 남긴 세월호 사건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유권자의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에 반영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첫째, 대상별 분노지수에서 나타났듯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당이 가장 직접적인 비난과 분노의 대상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 이는 정당일체감이 분노, 좌절감, 실망감, 불안감 등의 감정적 반응과 기억을 이끌어내는 자극에 의해 요동치지 않고 기존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분노지수에 반영되어 있듯 세월호 사건은 매우 감정적인 사건으로 대중의 뇌리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그 부정적 영향을 정당이 피해갈 수는 없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정당에 대한 호감도가 가라앉을 정도로 세월호 사건은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이러한 감정적 타격은 새정치연합 지지층 사이에서 강력하게 나타났다.

2. 정당에 대한 감정과 투표선택

앞 장에서 유권자들의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가 장기적 기간에 걸쳐, 그리고 외생적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하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적 여론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이것이 투표선택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주목하려 한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러한 공적 여론의 구성과 투표선택의 과정에서 이전에 존재하는 구조와 새로운 변화의 경향이 어떻게 경합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곳에서는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14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반복 측정된 변수들을 이용하여 첫째, 정당일체감, 정당호감도 및 분노지수가 어떻게 다르며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이고, 둘째, 이들이 투표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표 5〉 정당에 대한 감정적 태도와 투표선택

대통령선거 → 지방선거	응답자 수	정당일체감 변화*	새누리당 호감도 변화*	야당 호감도 변화*	분노지수 대통령	분노지수 새누리당
박근혜 → 새누리	229(26.9%)	−1.50	3.86	−3.37	4.56	5.23
박근혜 → 새정치연합	92(10.8%)	−1.03	−4.77	0.36	6.39	6.46
박근혜 → 기타	28(3.3%)	−1.08	−0.86	−6.89	6.35	6.65
문재인 → 새정치연합	390(45.7%)	−0.14	0.03	−6.17	8.49	8.66
문재인 → 새누리	53(6.2%)	−0.02	4.11	−8.74	7.79	7.96
문재인 → 기타	61(7.2%)	−0.04	−1.54	−7.57	9.06	9.13
전체	853	−0.68	0.65	−5.00	7.17	7.45

*지방선거 시기(2014년 6월) 측정치와 대통령선거 시기(2012년 10월) 측정치의 차이.

www.dbpia.co.kr

〈표 5〉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와 이번 2014년 지방선거의 투표선택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누어 집단별 당파심의 변화와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분노지수의 평균을 나타낸 것이다. 가장 주요한 발견은 정당일체감보다는 정당호감도와 분노지수가 지난 대통령선거와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선택을 일관되게 설명해 준다는 점이다. 단기적 투표의 이탈과 변화에 주목한다면, 정당일체감의 설명력은 낮고 호감도나 분노지수 등의 단기적 감정요인이 더 설명력이 높다는 것은 앞서의 결과와 연장선 상에 있다.

이를테면 새누리당 이탈자들(defectors: 박근혜→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호감도의 현격한 감소(−4.77)와 맞물려 있으며, 이는 새누리당 일관투표자(straight-ticket voters: 박근혜→새누리당)들에서 나타난 현격한 호감도 상승(3.86)에 비하여 질적으로 다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야당(민주당/새정치연합)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에 있어서도 새누리당 일관투표자들은 야당을 더 싫어하게 된 데(−3.37) 반해 새누리당 이탈자들의 야당 호감도는 소폭 증가하였다. 새누리당 이탈자들은 또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분노지수가 일관투표자들에 비해 현격하게 높았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정당일체감의 변화가 이러한 새누리당 이탈자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정당일체감이 높을수록 강한 새누리당 지지자임을 상기한다면, 일관투표자들의 일체감 약화(−1.50)에 비해 이탈자들의 일체감 약화는 그 정도가 오히려 덜하다(−1.03). 다시 말해, 정당일체감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단기적 투표 전환을 설명하지 못한다. 정당일체감은 장기적인 투표의 경향을 설명하는 데에는 매우 적절하지만, 이러한 단기적인 이탈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유권자들은 정당일체감의 큰 변화 없이도 지지하던 정당으로부터 이탈하여 투표할 수 있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나 기타 후보로 '이탈'을 했던 민주당 이탈자들의 경우에도 그 스토리는 대동소이하다. 야당을 이탈하여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은 새누리당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4.11), 야당을 매우 더 싫어하게 되었으며(−8.74), 일관투표자들에 비해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 대해 분노지수가 더 낮았다. 양 집단 사이에 정당일체감 변화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당일체감의 설명력이 없다는 점도 새누리당 이탈자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조금 더 일반화시킨 것이 〈표 6〉의 분석이다. 만약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감정이 미묘하게 변화한다면, 해당 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제의 정당호감도보다 오늘의 정당호감도가 오늘의 투표선택을 더 잘 설명하는가? 동시에, 앞에서 보인 것처럼 상대적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정당일체감 같은 감정도 그것이 단기적 변화를 겪을 때 투표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곳에서는 이상의 물음에 답하기 위한 보다 일반적인 모델을 제시한다.

〈표 6〉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을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를 통해 설명하려는 다중 로지스틱 모델의 추정 결과이다. 순차적 로짓(sequential logit)이라 이름붙인 것은 동일한 독립변수들을 이용하여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선택을 모델로 추정한 후, 응답자를 두 집단(박근혜 투표자와 문재인 투표자)으로 나누어 이들이 지방선거에서 선택한 투표(광역단체장)를 순차적으로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강조할 점은 〈표 6〉이 종합적이고 일반적인 투표선택을 설명하는 모델이 아니라 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의 "현재성" 혹은 단기적 임박성을 살펴보는 모델이라는 것이다. 정당일체감 및 정당호감도라는 동일한 개념을 여러 시기에 걸쳐 반복적으로 측정한 변수들을 일부러 중첩하여 독립변수로 사용[10]한 것은 어느 시점의 정당선호가 투표선택을 결정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www.dbpia.co.kr

〈표 6〉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의 투표선택: 순차적 로짓 모델

	대통령선거 투표선택 (박근혜 투표)			지방선거 투표선택 (박근혜 이탈)			지방선거 투표선택 (문재인 이탈)		
	계수	표준편차	p-값	계수	표준편차	p-값	계수	표준편차	p-값
정당일체감(2012. 12.)	0.07	0.09	0.435	−0.10	0.10	0.313	−0.01	0.11	0.912
정당일체감(2014. 6.)	0.39*	0.16	0.012	−0.48**	0.16	0.003	0.23	0.16	0.140
새누리당 호감도(2012. 10.)	0.01	0.01	0.474	−0.02	0.01	0.158	0.01	0.01	0.350
새누리당 호감도(2012. 11.)	0.03	0.01	0.012	0.02	0.01	0.289	0.00	0.01	0.722
새누리당 호감도(2012. 12.)	0.09**	0.01	0.000	0.00	0.01	0.989	0.01	0.01	0.256
새누리당 호감도(2014. 6.)	0.01	0.01	0.122	−0.04**	0.01	0.000	0.02	0.01	0.053
민주당 호감도(2012. 10.)	0.00	0.01	0.876	0.02	0.01	0.068	−0.01	0.01	0.622
민주당 호감도(2012. 11.)	−0.02	0.01	0.127	0.01	0.01	0.647	0.01	0.01	0.267
민주당 호감도(2012. 12.)	−0.07**	0.01	0.000	−0.01	0.01	0.249	0.00	0.01	0.936
새정치연합 호감도(2014. 6.)	−0.01	0.01	0.168	0.03**	0.01	0.003	−0.02**	0.01	0.010
경북	0.44	0.48	0.351	1.02*	0.40	0.011	0.38	0.49	0.433
호남	0.72	0.54	0.185	2.17	1.19	0.069	−0.19	0.44	0.664
연령	0.02	0.01	0.237	−0.02*	0.02	0.326	0.02	0.01	0.168
교육	−0.29	0.20	0.141	0.11	0.21	0.579	0.07	0.19	0.726
소득	−0.06	0.06	0.326	0.13	0.07	0.064	0.05	0.06	0.423
절편	−2.58	1.25	0.038	1.73	1.25	0.169	−2.82	1.25	0.024
	응답자 수 829 Pseudo R2=.69			응답자 수 313 Pseudo R2=.37			응답자 수 311 Pseudo R2=.30		

[a]음영 처리된 부분은 각 선거 당시 정당선호(정당일체감과 정당호감도)에 해당함.

〈표 6〉에서 음영으로 강조된 부분은 각 선거 당시의 정당선호를 표시한 것으로, 만약 단기적 정당선호의 변화가 해당 선거에 고유한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변수는 유의미하게 예측된 방향의 영향관계를 보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선거 결과를 추정한 첫 모델을 보면, 다른 시기의 정당호감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오직 2012년 12월의 새누리당 호감도와 민주당 호감도만이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10월, 11월과는 구분되는 12월 시점만의 정당에 대한 고유한 단기적 호감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이 고유성이 12월 대통령선거에서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반면 정당일체감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대통령선거 당시의 일체감이 대통령선거 시기의 투표선택을 잘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것은 정당일체감의 투표선택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 정당일

10) 정당일체감이나 정당호감도의 반복된 측정치들 간의 상관관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동시에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생각한다면 모델로서는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목적은 중첩되는 영향력을 서로 통제한 상태에서 각 시기 변수들의 상이하면서도 고유한 영향을 구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모델 구축은 불가피한 것이다.

www.dbpia.co.kr

체감이 잘 변화하지 않으며, 둘째,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기적으로 투표선택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따름이다.

지방선거로 가면 이러한 패턴은 보다 더 두드러지는데, 지방선거 당시의 호감도가 그 이전에 세 차례나 측정된 호감도 항목들을 통제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지방선거에서의 광역단체장 투표에 유의미[11]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흥미롭게도 지방선거에서 해당시기의 단기적 정당일체감은 '박근혜 이탈자'들에게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문재인 이탈자'들의 경우에는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발견은 투표선택에 있어 정당호감도는 매우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이전도 이후도 아닌 2012년 12월 당시의 새누리당과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투표선택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쳤고,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직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에 조사된 호감도만이 투표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도의 시계열적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기의 호감도만이 투표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다른 시점과는 차별되는 해당 시점 호감도만의 고유한 특성이 투표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준다.

Ⅵ. 토론

세월호 사건이 한국 사회에 남긴 상흔의 깊이와 명징성에 반하여 그 정치적 함의를 총체적으로 가늠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며, 그것이 지방선거에 미친 미묘한 영향을 밝히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곳에서는 앞서 세월호 사건이라는 거울을 통해 비추어졌던 시민들의 정당 선호의 구조와 특징을 통해 드러난 몇 가지 주요 발견들과 함의를 반추하고자 한다.

세월호 사건 국면에서 맞이한 지방선거는 통상적인 대의제적 책임정치, 회고적 평가, 그리고 합리적 과정으로서의 선거라는 모델과는 달리 슬픔, 분노, 좌절 등의 집합적 감정이 어떻게 한국 정치과정에 접합되는지를 보여주었다. 시민들이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고 그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정부와 여당으로만 향했던 것은 아니었으며,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야당이 여당보다도 더 많은 분노와 비호감을 누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자와 패자가 반드시 도출되는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러한 정치권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과 불만은 새누리당의 승리라는 선거평가를 가능하게 했지만, 그 내용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치 전반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유권자들이 지니는 정당선호의 상수항이 존재한다는 것 또한 사실로 보인다. 세월호 사건 국면에서 정당에 대한 단기적인 호불호가 매우 심하게 유동했지만, 시민들이 정치사회화 과정의 초기부터 형성하고 지속시켜온 특정 정당에 대한 내면화—그것을 소속감이라 부르건 일체감이라 부르건—는 매우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사건 국면에서 이것이 확인된 것은 정당일체감의 존재와 안정성에 대한 매우 강력한 증거이며, 이는 한국 선거 연구 문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11) 하나의 예외가 문재인 이탈자들에 대한 새누리당 호감도인데, 이 경우에도 p-값은 거의 .05에 근접하는 것을 보여준다.

www.dbpia.co.kr

서구정당과는 달리 명멸과 이합집산을 거듭하는 한국의 정당에 대해 유권자들이 안정된 일체감을 지닌다는 역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새정치연합으로 합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명이나 지도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부차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이 야당을 '나의 정당'으로 느끼는 것은 매우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선호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적 형태의 정당일체감이라 할 만하다. 둘째, 정당일체감을 정부 성과 및 정책 평가의 움직이는 총합으로 이해하는 수정주의적 모델이 적어도 한국적 상황에는 적실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당호감도의 변화에서 감지되는 세월호 사건이 일으킨 시민들의 감정의 단기적 파동과는 무관하게 정당일체감이 '나의 정당'에 대한 장기적인 심리적 애착심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점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지점이 아니었나 보여진다.

이로부터 감정의 정치(politics of emotion)가 지닌 한계와 가능성을 다시금 되돌이켜 보게 된다. 선거를 통해 공동체를 이끌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그 정부를 끌어내리거나 지속시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요체이지만, 이 과정이 잘 움직이지 않는 감정 혹은 애착심(정당일체감)과 단기적으로 쉽게 요동치는 감정(정당호감도, 분노지수)에 좌우된다면 정책과 내용의 정치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의 문제를 숙고하고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정치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극복해나가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이토록 어려운 현실도 바로 감정의 정치가 지니는 근본적인 어려움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러나 감정의 정치가 지닌 가능성이 확인되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 확인된 것처럼 시민들은 감정적 반응을 통해 정당과 정치적 대상들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선거의 단기적 국면에서 업데이트된 감정적 태도를 선거에서 정치적 판단을 내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정부와 정치에 대해 매우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의 칼날이 정밀한 책임성의 궤적을 그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매우 날카롭고 어디로 향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사실은 오히려 정부와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세월호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것처럼, 시민들이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감하고 연민하는 장면,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 과정을 통해 개인들이 사회와 더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고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사회에 대한 이러한 감정적 관여가 정치적 관심과 정보 습득, 토론과 숙고, 그리고 정치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면, 무기력한 시민과 책임성 없는 정부로 요약되는 현대 민주정치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로서 감정의 정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월호가 한국 정치와 한국 정치학에 던진 새로운 가능성이자 숙제인지도 모른다.

www.dbpia.co.kr

부록(Appendix)

* 세월호 사건 상기 실험문항

1. 세월호 사건의 발생 및 미흡한 대응과정에서 다음에 제시된 각 주체들의 책임 및 과실의 정도에 대한 귀하의 판단을 표시해주세요.

	매우 낮음				보통						매우 높음
	←										→
1) 대통령	0	1	2	3	4	5	6	7	8	9	10
2) 새누리당											
3) 새정치민주연합 (구민주당)											
4) 해양경찰청											
5) 안전행정부											
6) 지방정부											
7) 해운업계											

2. 세월호 사건 이후 각 주체들에 대해 느꼈던 분노, 좌절감, 실망감, 불안감 등의 강도를 표시해주세요.

	전혀 느끼지 않았다.										매우 강하게 느꼈다.
	←										→
1) 대통령	0	1	2	3	4	5	6	7	8	9	10
2) 새누리당											
3) 새정치민주연합 (구민주당)											
4) 해양경찰청											
5) 안전행정부											
6) 지방정부											
7) 해운업계											

www.dbpia.co.kr

참고 문헌

- 강원택. 2007. “민주화 20년의 정당 정치: 평가와 과제.”『경제와사회』 통권 74호, 66-83.
- 곽진영. 2009.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한국정당학회보』 8권 1호, 115-146.
- 박원호. 2013. “정당일체감의 재구성.” 박찬욱 · 강원택 편. 『2012년 대통령선거 분석』, 51-73. 파주: 나남.
- 박원호 · 송정민. 2012. “정당은 유권자에게 얼마나 유의미한가?: 한국의 무당파층과 국회의원 총선거.”『한국정치연구』 21집 2호, 115-143.
- 윤종빈 · 정희옥 · 김윤실. 2014. “한국 정당의 유권자 연계 수준과 정당정치 만족도.” 『한국정당학회보』 13권 2호, 31-62.
- 장승진. 2012. “제 19대 총선의 투표 선택: 정권심판론, 이념 투표, 정서적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46권 5호, 99-120.
- 한정훈. 2012.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정강, 정당지도자 및 정당활동가의 영향.” 박찬욱 · 강원택 편. 『2012년 국회의원선거 분석』, 137-174. 파주: 나남.
- 허석재. 2014. “한국에서 정당일체감의 변화: 세대교체인가, 생애주기인가.”『한국정당학회보』 13권 1호, 65-93.

- Achen, Christopher H. 1992. “Social Psychology, Demographic Variables, and Linear Regression: Breaking the Iron Triangle in Voting Research.” *Political Behavior* 14(3): 195-211.
- Almond, Gabriel. A. 1950. *The American People and Foreign Policy*. New York: Harcourt, Brace.
- Alwin, Duane. F. 1997. “Feeling Thermometers Versus 7-Point Scales Which are Better?”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25(3): 318-340.
- Bartels, Larry M. 2002. “Beyond the Running Tally: Partisan Bias in Political Perceptions.” *Political Behavior* 24(2): 117-150.
- Baum, Matthew A. 2002. “The Constituent Foundations of the Rally-Round-the-Flag Phenomen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6(2): 263-298.
- Brader, Ted. 2005. “Striking a Responsive Chord: How Political Ads Motivate and Persuade Voters by Appealing to Emo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9(2): 388-405.
- Converse, Philip E. 1964.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Ideology and Discontent*, edited by David Apter. New York: Wiley.
- Converse, Philip E., and Gregory B. Markus. 1979. “Plus ca Change...: The New CPS Election Study Panel.”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1): 32-49.
- Davidson, Richard J. 1988. “Affect, Cognition and Hemispheric Specialization.” In *Emotions, Cognition, and Behavior*, edited by Carroll E. Izard, Jerome Kagan, and Robert B. Zajon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www.dbpia.co.kr

- Erikson, Robert S., Michael B. Mackuen, and James A. Stimson. 2002. *The Macro Po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ranklin, Charles H., and John E. Jackson. 1983. "The Dynamics of Party Identification."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4): 957-973.
- Hobbes, Thomas. 1968. *Leviathan*. Edited by C. B. Macpherson. Baltimore: Penguin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in 1651.)
- Hume, David. 1896. *Treatise of Human Nature*. Edited by L. H. Selby-Bigge. Oxford: Clarendon. (Original work published in 1738.)
- Hunt, Lynn. 2008. *Inventing Human Rights: A History.* New York: W. W. Norton.
- Green, Donald, Bradley Palmquist, and Eric Schickler. 2004. *Partisan Hearts and Mind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Jennings, M. Kent, and Richard G. Niemi. 1975. "Continuity and Change in Political Orientations: A Longitudinal Study of Two Generation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4): 1316-1335.
- Johnston, Richard. 2006. "Party Identification: Unmoved Mover or Sum of Preferenc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9(1): 329-351.
- Lau, Richard R., and Caroline Heldman. 2009. "Self-Interest, Symbolic Attitudes, and Support for Public Policy: A Multileve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30(4): 513-537.
- Lewis-Beck, Michael S. 1990. *Economics and Elections: The Major Western Democracie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adison, James. 1787. "The Federalist, No.10." In *Readings in American Politics: Analysis and Perspectives,* edited by Ken Kollman. 2010. 47-57. New York: W.W. Norton&Company.
- Marcus, George E. 1988. "The Structure of Emotional Response: 1984 Presidential Candidate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2(3): 737-761.
- Miller, Arthur H., Christopher Wlezien, and Anne Hildreth. 1991. "A Reference Group Theory of Partisan Coali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53(4): 1134-1149.
- Nussbaum, Martha. 1996. "Compassion: The Basic Social Emotion."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13(1): 27-58.
- Pasek, Josh., and Jon A. Krosnick. 2010. "Optimizing Survey Questionnaire Design in Political Science: Insights From Psychology." In *Oxford Handbook of American Elections and Political Behavior,* edited by Jan E. Leighle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7-50.
- Riker, William H., and Peter 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01): 25-42.
- Sears, David O., and Carolyn L. Funk. 1999. "Evidence of the Long-Term Persistence of Adults' Political Predisposi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61(1): 1-28.
- Sears, David O., Carl P. Hensler, and Leslie K. Speer. 1979. "Whites' Opposition to "Busing": Self-Interest or Symbolic Politic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3(2): 369-384.
- Shapiro, Robert Y., and Benjamin I. Page. 1988. "Foreign Policy and the Rational Public."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32(2): 211-247.
- Valentino, Nicholas A., Vincent L. Hutchings, Antoine J. Banks, and Anne K. Davis. 2008. "Is a

www.dbpia.co.kr

Worried Citizen a Good Citizen? Emotions, Political Information Seeking, and Learning via the Internet." *Political Psychology* 29(2): 247-273.

- Watson, David, Lee A. Clark, and Auke Tellegen.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s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6): 1063-1070.
- Weisberg, Herbert F., and Arthur H. Miller. 1979. "Evaluation of the Feeling Thermometer: A Report to the ANES Board Based on Data from the 1979 Pilot Study Survey." *ANES Pilot Study Report*. No. nes002241.
- Wilcox, Clyde, Lee Sigelman and Elizabeth Cook. 1989. "Some Like It Hot: Individual Differences in Responses to Group Feeling Thermometers." *Public Opinion Quarterly* 53(2): 246-257.

www.dbpia.co.kr

Emotional Underpinnings of Partisanship:

The Sewol Ferry Incident and the 2014 Korean Local Election

PARK Won-ho · SHIN Hwayong

Abstract

This paper sheds light on how the Sewol ferry incident influenced Korean society in the context of the 2014 Korean local election. By comparing party identification and feeling thermometer ratings toward political parties, we examine how partisanship was influenced by emotions, such as outrage or frustration caused by the Sewol ferry incident. Furthermore, we discuss how the electorate reflected these emotions on their vote choices. Using panel survey data, which extend over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2014 local election, and a survey experiment that we devised to evoke memories of the disaster, we demonstrate that Korean voters have retained stable party identification even after undergoing the national disaster, yet at the same time that their short-term feelings toward political parties were severely exacerbated. We show such disappointments with politics in general were expressed as adverse feelings toward both parties, rather than resulting in punishing solely the incumbent party in the election. On the other hand, analyses on vote choices reveal that citizens constantly make instant and emotional assessments on political parties and actively reflect those short-term appraisals on their vote decisions, while their party identification still remains a long-lasting and solid basis of political attitudes. Politics of emotion, in which the electorate promptly update their attitudes toward political parties based on their feelings and intuitions, may overlook the fine prints in policy and platforms, but can still work as a mechanism to improve political accountability.

Key words: party identification, feeling thermometer, (voter) emotion, national disaster, Sewol Ferry incident, Korean election

www.dbpia.co.kr